

소외계층 촘촘한 지원... 군민이 행복한 보성 만들기

0세~1세 아동 부모급여 최대 70만원·아이돌봄 이용 960시간으로 자립 청년 수당 확대·경력단절 여성에 바우처·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보성군이 올해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보성군은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원) 대신 부모급여(월 35만~70만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 돌봄 체계에도 변화를 준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 원 내에서 월 10만 원 내로 매칭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처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과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 원을 투입,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밥차를 3~12월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

양식을 제공한다.

재활·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와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늘렸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141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대비 5%, 장애수당은 2만 원 인상했다.

지난해 잠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정한 데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연 36만원을 지급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더 빠르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맨 오른쪽) 보성군수가 도서관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다. <보성군 제공>



거문도 속 개는 아늑네 지리적표시 제85호로 등록된 여수 대표 농특산물인 '거문도해풍쪽' 출하가 시작됐다. 거문도 해풍쪽은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거문도 청정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 속 향이 진하고 부드러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동호안 신산업 유치, 제도 개선 필요"

현행법상 제철 관련 업종만 가능... 제도개선 건의

광양시가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759만㎡(약 230만 평) 중 445만5000㎡(약 135만 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 5000㎡(약 95만 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 포스코에서 동호안 부지에 이차

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부지에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장, 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는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련 부처도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포스코 그룹이 이차전지, 수소 생산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며 신산업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광양에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농업용 면세유값 상승분 추가 지원

군, 리터당 213원...다음달 20일까지 신청

곡성군은 농업인이 일정 기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구입가의 상승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단체의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면세유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되는 면세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등유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면세유는 농가별 배정량에 따라 1ℓ당 213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

원액은 면세 유류 구입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시설 원에 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등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1ℓ당 130원이 차감된 83원이 지원된다.

1만 ℓ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액 213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28 ℓ 미만 사용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공모 선정...200억 투입

광양시가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백운산 등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권으로 유입시키는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됐다. 1년간 설계비 1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90억 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3년간 시공하게 된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바람길숲 분석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3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4월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4월에 착공해 12월까지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소상공인에 150억 저리 대출

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자 3% 보조...내일까지 신청

순천시가 경기불황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증사업은 지난해 일반보증은 약 115억원 451개소, 특별보증은 약 16억원 60개소가 보증지원을 받았고, 이차보전사업은 총 4566개소에 7억8000만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이자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162억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

농로·용수로 정비 등 651건...장마철 이전 공사 마무리

고흥군이 162억원을 들여 농로·용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읍면 담당자에게 민선 8기,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소규모 사업을 주제로 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지역별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해 영농기 및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 생활 및 영농활동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올해는 651건에 162억여원이 확정됐다.

주로 ▲주민숙원사업 ▲진입로 확장·포장 ▲용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농로 정비 등이 다.

군은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내용을 홍보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 감독관을 위촉·운영해 품질관리 방안 등 부실시공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개발사업 조기 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 영농 여건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흑두루미 위치추적해 이동·서식지 연구

순천시, 5마리에 추적기 부착 서식지 보전 위한 자료로 활용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수집의 새 길이 열렸다.

순천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순천만 흑두루미 5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순천시와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는 최근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이동 경로 연구가 시작된 셈이다.

위치추적기 설치 후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이동통신망 기자국을 통해 수신받는 위치추적기 무게는 22g이며, 태양광 충전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이용 패턴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생태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 전략 수립과 지자체 간, 국가 간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5마리에게 관계자들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와 분산에 위한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해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